

# 진안 홍삼축제 막 올라

### 군민의 날과 통합 개최 군민 등 2000여명 참석



진안군 308개 마을 대표가 함께하는 308L 홍삼주 담그기를 하고 있다.

진안군은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54회 진안군민의 날 및 진안홍삼축제를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개막 첫날인 12일 북부미아산 마이든테마파크 특설무대에서 안호영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 도내 언론사 대표, 최혜경 여사, 해외 사절단 등 내외 귀빈과 군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진안군민의 날 및 2016 진안홍삼축제 개막식을 개최했다.

진안군은 진안홍삼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축제의 국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 해부터 군민의 날과 진안홍삼축제를 통합하여 처음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진안군민의 날 대상을 수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 김재환, 공익새마을장 최선형, 산업군로장 이영춘, 애향장 성홍수, 윤연순씨가 효열장을 수상했다.

특히 하니 셀럽라립 이집트대사 등 주한 아프리카 사절단과 히다카 카즈노리 아이정 교육장을 비롯한 일본 아이정 사절단, 허칭 중국국제방송 부총재와 중국 언론사에서 개막식에 참석하여 상호 우의를 다졌다.

개막식 행사에 이어서 열린 개막 퍼포먼스에서는 축제의 성화대에 불빛이 점화되자 건강대포가 발사되어 참여한 모든 사람의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 펼쳐진 주제공연에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미디어 퍼포먼스 쇼디자인 그룹 '생동감'이 LED 미디어 트론댄스를 선보여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진안군 308개 마을 대표가 함께하는 화합 퍼포먼스행사로 308L 홍삼주 담그기와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읍면 단합 체육대회가 진행되었으며 가을날의 풍경과 선율이 함께 어우러진 코스모스 힐링콘서트의 관광객에게 재미를 제공한 홍삼씨름왕 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항로 군수는 "축제기간동안 진안홍삼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맛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진안에 오셔서 가족과 함께 홍삼도 맛보고 공연도 보면서 즐겁고 소중한 기억 한기득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요'

### 무주부남 대소리 - 안산공판장, 자매결연 맺어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이장 유상돈)와 농협경제지주 안산공판장(대표 양재동)이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날 결연은 1사 1촌이 함께 상생하여 교류하는 농촌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부남면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결연식에는 무주군과 무주농협, 농협경제지주 안산공판장, 그리고 대소리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산공판장에서는 일손 돕기를 비롯해 환경보호활동과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앞장 설 것을, 대소리 마을에서는 도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제공할 것 등을 약속했다.

결연식 후 참석자들은 반딧불 낚이수확 체험에 참여했으며 부남면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향토음식 시식 시간을 가지며 우의를 돈독히 했다. 농협경제지주 안산공판장 양재동 대표는 "지난여름 낚이작목반과의 인연이 계기가 돼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청정 농·특산물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며 "오늘을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농협경제지주 안산공판장은 지난 8월 부남면 무주반딧불낚이연구회와도 농산물 판매에 관한 협약을 맺고 농업인의 실익증대와 관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는 대소, 도소, 대소리 유상돈 이장은 "우리 마을을 믿고 찾아준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청정무주와 금강 래프팅의 고장 부남, 깨끗이 고장 부남이 더 많이 알려지고, 무주사람들의 인심이 더 깊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농촌생활발전 전북모임, 장수 영농현장 방문

### 전북농업 발전방안 모색

농촌생활발전 전북모임(회장 김인수) 25명의 회원들이 지난 10일 장수군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영농현장을 방문하고 전북농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생활발전 전북모임은 전라북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가공과 농촌여성교육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퇴직자들과 전라북도생활개선회 전지회장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1980년대부터 1980년대 농촌여성 인권의 신장과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촌여성 농작업 편의장비 개발 등의 사업을 손수 추진하며 변화를 이끌어 온 일꾼들이다.

장수군 주요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센터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장수화훼단지 방문하여 전라북도 화훼산업을 이끌고 있는 장수화훼영농조합법인의 운영현황을 청취했다.

김인수 회장(65세)은 '십여년전에 장수군을 방문한적이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장수군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장수군의 규모화된 영농작목들과 기술 수준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함께한 전북농업기술원 백운금과장은 장수군이 2010년 이후 농산물가공센터를 통한 창업보육교육과, 식품클러스터사업등을 추진하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에 큰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말하고 장수군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농촌생활발전 전북모임의 지속적인 조인과 컨설팅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완주군, 수질·생활환경 개선사업 총력

### 2020년까지 하수도 정비에 1476억원 투입

완주군이 오는 2020년까지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에 1,476억원을 대거 투입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수질 개선 및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내용은 올해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700톤 증설을 위해 고산공공하수처리장과 구이 공공하수처리장에 각각 66억원과 89억원 등 총 154억원을 투자해 공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삼례읍 해저리 및 봉동읍 구암리·제내리 일원의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에 158억원, 상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상관면 마치리, 신리 어두마을, 용안리 남관초등학교 일원)에 69억원을 투자한다.

용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에 205억원, 고산면·비봉면·화산면 3개면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고산처리구

역 하수관거 정비에 228억원 등 총 731억원을 투자하는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총 178억원을 투자해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산면 소항리 일원의 신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를 비롯해 소양면 화심리·해월리에 200톤의 하수처리장과 11.6km의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구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를 추진한다. 비봉면 내월리 일원에 하수관거 9.1km를 설치하는 천호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경천면 가천리 일원에 처리장 100톤 및 하수관거 7.2km를 설치하기 위한 원가천 마을하수도 정비 등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 신규사업으로 운주면 원고당에 처리장 180톤 및 하수관거 9.4km 설치를 골자로 하는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9억원을 확보하고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서면 이서리 일원에 하수관거 12.6km를 설치하기 위한 이서2단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설계도 추진하는 등 총 7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738억원을 확보한 완주군은 앞으로 하수처리구역 포함 예정지역인 소양 구진 2단계, 구이 염안지구 및 원평촌 지구, 운주 중촌 2단계 및 대둔산·평촌 지구 등 6개 지역의 하수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이처럼 하수도 사업이 완료되면 6,200여 가구가 정화조 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직접 연결해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악취나 해충제거 등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보건 위생 향상과 주변 하천 수질오염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일 군수는 "사업이 마무리 되면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세간급 유역의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군, 농산물우수관리 읍·면 순회 교육 실시

진안군은 12일 진안고원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이달말까지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 주천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300여 마을 대표를 대상으로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 토양과 수질 등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2015년 37농가 45ha에서 2016년 337농가 217ha의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을 취득하여 전년 대비 482%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고, 2017년에는 300ha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날 19일까지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팜투어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르완다, 이집트, 앙골라 등 7개국이 참여하고 2개국 대사를 포함하여 민간비이더, 학계 교수 등 총 20여명이 투어를 신청했다. 주한아프리카 대사부부 방문단은 마이산 남부를 방문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주요 관광명소를 탐방하고 홍삼 주류와 홍삼스와 체험



## 사람의 지식·경험·지혜 나눠요

### 완주군, 휴먼라이브러리 진행

완주군이 오는 15일에 '2016 평생학습 북적북적 페스티벌' 가운데 '휴먼라이브러리(Human Library)'를 진행한다

휴먼라이브러리는 'Living Library'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이벤트로 테마파크 출신의 사회운동가 로니 에베렐이 2000년도에 창안한 것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책(Human book)을 빌리는 것으로 사람책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 지혜를 나누는 행사이다.

이번 휴먼라이브러리에서 만날 사람책은 ▲권석배(허립 R&D연구원, '맛

있는 치킨에 대한 비밀을 쉽고 재미있게') ▲김생수(세무사, '조세가 문명에 대한 댓가이긴 하나 절세는 아름다운 것이다') ▲박근영(뮤지컬배우, 'Musical is Play! 소리, 움직임 그리고 대화') ▲박정(일러스트레이터·작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안태상(기타리스트·작곡가, '음악만 하며 살고 싶다') ▲이원근(눈요기 명상지도자, '눈을 다스리다 눈요기 명상') ▲이화경(시낭송가, '사람의 소리 시에 날개를 달다') ▲임성진(간호사, '간호의 길을 걷다') ▲장영란(농부·작가, '사람이 자연의 품에서 살면') ▲표효진(방송작가, '방송작가가 말하는 방송작가의 세계') 총 10명이다. (기사 다순) /완주=이종복 기자

## 특별블로그

### 무주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선정

무주군은 '용포 다목적 작업장 및 복지관' 조성사업이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특별 공모에 선정됐다.

이로써 무주군은 6억 8천 8백만 원의 기금을 지원받게 됐으며 2017년부터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무주읍 용포리 추동마을 일원에 마을 공동작업장 및 농산물 판매장(200㎡), 다목적복지관(200㎡)을 조성하고 마을회관을 리모델링(120㎡)할 예정이다.

무주시설관리사업소 이형재 하수도 담당은 "이 시설은 마을에서 생산하는 사과, 고추, 옥수수 등의 농산물을 선별,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돼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뿐만 아니라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다목적 주민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주민건강과 복지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강과 연계된 농촌지역인 무주읍 용포리 일원은 용담댐이 개발되면서 하천 내 백사장과 자갈밭 등이 훼손돼 그동안 주민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있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자유총연맹 강영호 완주군지부장 취임

한국자유총연맹 완주군지부는 12일 상관리포에서 박성일 군수, 정성모 군의장, 전북도지부 이영국 부회장,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대 유운두 회장 임식 및 제 6대 강영호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유운두 회장은 임임을 통해 "그동안 단체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신 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유총연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호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 등 어느 때보다 자유총연맹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신뢰받고 화합하는 지역의 명문단체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무주경찰 실천파출소, 농산물 절도 예방 책임수찰 활동 전개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 실천파출소(소장 양희용)는 수확철 농산물 절도, 빈집털이 등 서민안전 침해범죄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들 범죄로부터 안전한 고장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각 마을 별 담당 경찰관을 지정 '책임순찰'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농산물 보관창고, 축사, 4년기 이상 인삼밭 등 잠재적 범죄 표적에 대한 방범장비를 병행함으로써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월리 마을인구 CCTV 점검 및 농산물 보관창고 주변 CCTV설치를 권장하고 주민과 치안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민경협력방범 구원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완주경찰, 경운기 경광등 부착

완주경찰서(서장 이승길)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경운기에 경광등을 부착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예방활동은 노인 운전자들이 빈번하지만 경운기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후미등 장착 등 안전설비 설치 의무가 없고, 속도가 느려 야간 도로운행시 식별이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을 고려해 실시했다.

이승길 서장은 "농기계는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운기의 야간 운행을 지양하고 읍무운전금지 등 안전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군, 주한 아프리카 대사부부 초청 투어

진안군은 12일 지역 대표축제인 '2016 진안홍삼축제'와 마이산, 홍삼스과 등을 홍보하기 위해 주한 아프리카 대사부부를 초청 진안 홍보 투어행사를 실시했다.

군은 지난날 19일까지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팜투어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르완다, 이집트, 앙골라 등 7개국이 참여하고 2개국 대사를 포함하여 민간비이더, 학계 교수 등 총 20여명이 투어를 신청했다. 주한아프리카 대사부부 방문단은 마이산 남부를 방문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주요 관광명소를 탐방하고 홍삼 주류와 홍삼스와 체험

을 즐겼으며 홍삼축제장을 돌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이번 투어에 참가한 한 대사는 "이번 투어를 통해 진안에 대해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과 함께 한 번 더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세계 유일의 부부봉이자 마슬렐 가이드에서 별개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마이산에서 전국 유일의 홍삼특구에 걸맞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지역 홍삼의 대외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세계로 나가는 명품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